


 <b>보도자료</b> 	
 <b>해양수산부</b>	
<b>배포일</b>	<b>2018. 10. 29.(월)</b> <b>총 4매(본문 4)</b>
<b>담당부서</b> 해양생태과 해양환경공단	<b>담당자</b>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안준영, 주무관 정성근 ☎ (044)200-5310, 5312, 5317 • 해양생태팀장 황인서, 과장 정희인 ☎ (02)3498-7151, 7158
<b>보도일시</b>	2018년 10월 30일(화)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30.(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 그림으로 웹툰으로... 화폭 속 우리 해양생물을 만나다

### - 해수부, 2018년 해양생물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10월 30일(화) 오후 1시 해양환경공단 본사(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2018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본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 부문과 중·고등학생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435명 늘어난 5,372명이 작품을 공모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그림 부문에서 94점, 웹툰 부문에서 30점 등 124점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부문 해양사랑상			
			
<b>작품명</b>	<b>바다를 향해 달리는 새끼거북이들</b>	<b>작품명</b>	<b>이 지도는 누가 그렸니</b>
<b>수상자</b>	<b>이민서(북자여자중학교 3학년)</b>	<b>수상자</b>	<b>이지빈(서울도성초등학교 3학년)</b>

그림 부문에서는 이민서 학생(천안 북자여자중 3)과 이지빈 학생(서울도성초 3)이 해양사랑상(해양수산부장관상)을, 주의현 학생(서울 길음중 2)과 장소영 학생(구미 옥계동부초 6)이 생물사랑상(해양수산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한다.

▲ 이민서 학생의 작품 '바다를 향해 달리는 새끼거북이들'은 알에서 깨어나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하는 바다거북의 생태를 그렸으며, 볼펜을 이용한 세밀한 묘사와 뚜렷한 색상 대비로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었다.

▲ 이지빈 학생의 작품 '이 지도는 누가 그렸니?'는 갯벌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을 스크래치 기법으로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부문 생물사랑상			
			
<b>작품명</b>	<b>빨대가 콧구멍에 들어갈까봐 피해다니는 바다거북들</b>	<b>작품명</b>	<b>쓰레기 바다를 살리고 싶다</b>
<b>수상자</b>	<b>주의현(길음중학교 2학년)</b>	<b>수상자</b>	<b>장소영(옥계동부초등학교 6학년)</b>

▲ 주의현 학생의 작품 '빨대가 콧구멍에 들어갈까봐'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받는 해양생태계의 모습을 알기 쉽고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

▲ 장소영 학생의 작품 '쓰레기 바다를 살리고 싶다'는 소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해양생물들과 바다를 감성적으로 표현하였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매년 출품작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웹툰 부문의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은 박예송 씨의 작품인 ‘해양생물과 심청이의 海(해)피엔딩’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해양생물과 고전 작품인 심청전을 결합시킨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출, 높은 완성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웹툰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며, 그림부문의 해양사랑상, 생물사랑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30만 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이 외의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체 수상작들은 30일부터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중에 서울역사 등에 전시하여 국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